

전북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역량 집중

전북농협,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우수한 전북농산물 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관측활동을 위해 경제지주본부부장, 원예사업담당, 실무자들이 수도권 유통센터, 대형마트, 공판장 등을 대상, 이번주부터 관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북관내에서도 특관행사, 직거래 장터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 광역브랜드인 예담채·예미향·참예우 등 브랜드 모두를 일컫는 '삼예삼미'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농협은 "전북 광역브랜드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는 아직도 인지도가 낮아 집중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삼예삼미,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북농

협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이번 설 우수한 전북농·축산물 애용해 줄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담채(원예)는 '3년 연속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2015년~2017년)·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장관상(2014년~2016년)·2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2017년~2018년)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참예우(한우)는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2018년도까지 최근 6년 연속 국가명품인증 받는 등 전국 최고 명품한우로 인정받았다.

예미향(쌀)은 만경강 지역 비옥한 토질의 전용 생산단지(200ha)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되는 고품질 브랜드 쌀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우수한 전북농산물 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전북농협,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수급안정 현장 지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2일 설성수기 기간 중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 원활한 공급안정을 위해 전주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현장을 방문, 재고 현황 파악과 수급상황 점검, 농업인의견 수렴, APC 임직원 등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품목별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 대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채소 및 과일류(사과, 배 등)를 평년대비 50~90% 확대 출하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하나로유통 및 마트

등에서 시중가격보다 15%~40% 할인된 가격으로 특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농협 광역 브랜드인 예담채 사과·배 혼합선물세트를 특가 판매하고 29일 전북인재개발원에서는 농수산물, 제수용품, 지역특산물을 시세대비 20%~30% 할인판매 하는 직거래 특별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농산물 제값 받기는 수급조절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장 임직원들은 합동지명 사명감을 갖고 농산물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기업들 체감경기 여전히 악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설 공장가동·상여금 지급실태 조사 실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는 2019년 설 연휴(2.4~2.6)를 앞두고 관할지역(정읍,김제,고창,부안)에 있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공장가동 및 상여금 지급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휴무기간은 100개 업체 중

주말을 제외 한 3일 휴무가 96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설 연휴동안 83개 업체가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반면 17곳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 가동을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급 한다는 업체가 46곳, 미지급과 미

정인 업체가 54곳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및 자금부족(45곳)과 연봉에 포함(5곳)과 정기 상여금 만 지급(4곳)등의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각각 답했으며,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기본급 대비 50% 지급한다는 응답이 40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0~30% 지급한다는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77개 업체가 '같거나,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지난해 같은 질문에 70개 업체가 '같거나,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김적우 회장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이 넘어 안타깝다며 현재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관할지역 관련 기업들이 매출감소와 부도를 겪고 있어 큰 어려움이 있고, 이와 함께 명절 체감경기도 지난해와 비교해 더 악화됐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큰 관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 농어촌소, 점검반 편성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북지역의 54여개 지구구를 대상,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안전점검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전북본부의 안전전문가로 구성, 점검반 편성하여 '농촌용수, 배수개선, 지역개발사업' 등 공사의 주요 사업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현장 안전 정기점검 실행 여부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소는 "안전점검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 캠페인도 진행하고 점검 시 미흡했던 부분들은 다가오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고객맞춤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 제공토록" | 전북농협, 'WM로드쇼' 개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2일 전북 관내 영업점 WM(자산관리전문가)을 대상, '2019년 WM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드쇼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른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상황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9년도 자산관리 트렌드와 세무, 은퇴설계에 이르는 종합적 자산관리 과정으로 이뤄졌다.

또한, NH농협은행 영업점 WM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방과, 스마트 자산관리, 퇴직연금, 신탁 등의 자산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권역별 WM담당자와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농협은행만의 차별화된 은퇴설계 서비스인 'AM100플랜'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100세 시대에 따른 중장기적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강조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22일 '2019년 WM 로드쇼'를 개최했다.

됐다.

농협은행이 운영중인 'AM100플랜 라운지'는 은퇴설계 전문가 NH AM100플래너의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맞춤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이 22일 익산시 모현동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9 설날,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따뜻한 떡국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전북은행,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서 봉사 활동 펼쳐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2일 익산시 모현동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9 설날, 따뜻한 밥상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을 비롯,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은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 떡국 및 다과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고 식사 후, 설맞이 생필품 선물세트를 전달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전북은행은 매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매년 떡국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은행 임직원들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임재원 전북은행부행장은 "장수의 의미를 담아 전북은행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떡국 봉사는 어르신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전북은행은 항토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22일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군산, 대전, 원주, 전주지역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꾸러미 1,600여 상자를 전달하는 기부 릴레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